

"왁! 잡아먹는다?"...치어리더 김나연 '시선 강탈'

등록 2025.07.27 01:00:00



[뉴시스] 치어리더 김나연.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치어리더 김나연(26)이 깜찍하고 발랄한 응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근 김나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자신의 구단 웨이치안 드래곤스를 위해 치어리딩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김나연은 군용 패턴의 크롭탑과 숏팬츠, 귀여운 박쥐 모양의 헤어핀을 매치해 눈길을 끌었다. 귀여운 비주얼을 완성한 김나연은 밝은 에너지로 응원을 펼쳤다.

한 사진에서 그녀는 "왁!"이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마스코트와 함께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등 유쾌한 장면도 연출하기도 했다.



[뉴스시스] 치어리더 김나연.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김나연은 한화 이글스 구단, 웨이치스 드래곤스 등 여러 응원 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pun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